

국회 교육위원회, 전북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도내 한 학교법인 감사자료 '도마위'

B 사립여고 행정실장 갑질·폭언 등 지적... 서거석 교육감 "더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 현행 사학법 문제 많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의 한 사립여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과 폭언,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친인척 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지역 A학교법인 B여자고등학교 감사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다"면서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발언들이 많은데 전북교육청을 이를 보고만 고도 묵살했다. (행정실장은)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 공익제보자를 해임 의결했다"며 "제보자 해임 결의 자리에 문제가 된 행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목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문제의 행정실장을) 제가 감사를 통해 문제 있는 것을 보고 해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면서 "장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제 보고를 들었다. 행정실장의 해임 결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리 참석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해 "현행 사학법의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A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A학교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모두 다 특정 성들이 차지하는데 모두가 친인척"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기록된 날짜는 4월 10일인데 회의를 한 날짜는 4월 16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 논란의 행정실장이 아들

을 채용했고, 본인은 정년 후 법인국장으로 셀프채용했다"면서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해임당한분은 법인국장 직함을 달고 그 자리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교육위 전북대 국정감사 화제는 '대학 개인정보 유출·청렴도'

양오봉 총장, 대학 개인정보보안 예산 감소에 "교육부 예산 한정적... 재정 확보 어려워"

낮은 청렴도와 관련 "컨설팅 통해 향상토록 할 것" ... 의대생 관련 질의·응답도 이어져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전북대 국감에서는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국립대 최하위권인 청렴도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날뛰기 예산을 지적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 7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대학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돼 학생과 졸업생 등 3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성명과 성별을 비롯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 사건 이후 해킹 원인으로 '비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오봉 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번호 찾기'의 보안 취약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보안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전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북대 개인정보보안 예산이 8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과 교육부의 한정적 예산에 따른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립대 최하위권인 청렴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거점대로서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송구하다. 1등

급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통해 반드시 향상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생 관련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8월 이후 의대생들과 어떤 소통을 진행했느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유급조치를 진행할 것인가" 등을 질문했다.

양오봉 총장은 "아직까지도 의대생들의 복귀에 목적을 두고 실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은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 총장은 "의대생 복귀 마감 일자를 정해두지 않아 11월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 학기 시작을 미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반도체설계대전 '특허청장상'

전북대 이겨레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통신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연구실의 이겨레 박사과정생(전자정보공학부, 지도교수 임동구)이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겨레 박사과정생은 사용자 핸드그립 감지 및 신호차폐 보상 알고리즘을 내장한 다기능 5G/6G 밀리미터파 위상 배열 시스템을 선보였다. 그는 실제 이동단말 환경에서 사용자 핸드그립에 의한 송신기 EIRP 저하량이 제안 기술을 통해 3 dB 이상 개선됨을 실증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탁월한 창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대한민국 반



도체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1명, 산업부장관상 4명, 특허청장상 2명, 기업특별상 1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명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겨레 박사과정생은 현재 BK21-FOUR JIANT-IT 인력양성사업단의 장학 지원을 받아 반도체 회로 설계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진로진학상담교사 20명 선발

25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진로진학상담교사 20명을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 소지자 또는 자격 취득예정자로서 올해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이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과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교사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원서와 학교장 추천서, 진로진학

교육 관련 경력 평정표, 진로교육 추진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5일 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전자 문서 및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역량평가를 거쳐 11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2025년 3월 1일부터 중·고교에 배치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로진학교육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 교원 성취평가 역량강화 실습형 직무연수

내일 전주교대 교육문화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9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고교 교원 성취평가 역량 강화 실습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 110여 명이 참여하는 이날 연수는 수업과 평가 연계성 강화와 고교 성취평가 내실화가 목적이다.

특히 2022개정교육과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평가계획 수립부터 문항 제작,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까지 고교 교원의 성취평가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뒀다.

사전과제로 제시된 성취평가제 이론과 실제 6차시 원격연수를 바탕으로 국·영·수·사·과·전문 교과 등 6개과의 실습형 집합연수로 구성됐다.

실습형 연수 과정은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법 △평가 단위 성취수준 진술등 평가 계획 수립 △성취수준별 지필평가 문항 출제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최소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판별한 문항 개발 실습 등 6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과목의 모듈 활동은 4개의 소그룹으로 분반해 평가 문항을 개발·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